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7>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장애가 생겨

세상을 살다보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더 많은데도 그 때마다 사람들은 성을 낸다. 그 성내는 마음을 들여다 보면 언제나 '나'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 마음속에 '나'를 내세워서 '나'는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냐'라고 내 위주로 생각의 틀을 짜서 그 틀에 맞는 것은 좋아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싫어한다. 그러다 이 틀이 깨지기라도 하면 불같이 성을 낸다.

성을 냄으로써 오장육부를 바짝 태워 자신의 욕심을 파괴하고 주변의 평화를 깨뜨려 모든 삶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린다. 이처럼 어리석은 삶은 '나'라는 생각의 실체가 허망한 줄 모르는 것에서 비롯된다. <선가귀감> 47장에서는 성을 내면 온갖 장애가 생긴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有人來害 當自攝心 勿生瞋恨. 一念瞋心起 百萬障門開
어떤 사람이 해를 입혀더라도 그 자리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지어다. 한번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면 온갖 장애가 생기게 되는 니라.

부처님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성을 내거나 분한 마음을 내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이 나를 심한 욕설로 모욕하고 힐끔으며 발로 차더라도 참아 내야만 한다. 그 고비를 잘 넘겨서 참아 내는 마음 그 자체가 복(福)이 되고 덕(德)이 된다. 나한테 허물이 없는데도 욕되고 비방하고 화를 내며 때리는 것은 그 사람의 어리석음 때문이니, 그

어리석음에 일부러 맞서 싸우거나 성을 내고 다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이 들어있는 <유교경(遺教經)>에서도 부처님께서 비구들은 성을 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신다.

"그대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이 그대의 사지를 마디마디 부러뜨린다 해도 스스로 마음을 거두어서 성을 내거나 원망하지 말라. 또 입을 잘 단속하

성냄은 '나' 잘 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에서 나와

'나라는 놈' 실체가 없는 줄 알고 집착 말아야

어 나쁜 말을 하지 말라. 제멋대로 성을 내면 도(道)를 방해하여 공덕을 잃게 된다. 참음으로 얻는 공덕은 잠으로써 커서 계행(戒行)이나 고행으로 얻는 공덕이 미칠 수 없는 것이니,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큰 힘이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 만약 꾸짖고 욕설하는 독약을 감호수 마시듯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성을 낸다면 이 사람은 도(道)에 들어가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성을 내는 해악은 좋은 모든 법을 파괴하고 드러난 명예를 떨어뜨리니, 지금 사람이나 뒷날 사람들이 보고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내는 마음은 맹렬히 타오르는 불보다 그 해악이 더 심한 줄 마땅히 알아야 한

다. 늘 그 마음을 잘 다스리고 보호하여 성내는 마음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공덕을 빼앗는 도적은 성냄보다 더 심한 것이 없다. 세상 사람들은 욕심이 많고 도(道)를 뒤지 않아 스스로 제어할 법이 없으므로 그들의 성냄은 응서할 수 있는 것이지만, 출가하여 욕심 없이 도(道)를 뒤는 비구들이 성을 낸다는 것은 참으로 옳지 못한 일이다. 성내는 일을 비유하면, 차가운 맥장구를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아서 마주 상대할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화엄경>에서도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一念瞋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一念瞋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성내는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 [一念瞋心]이 있는 사람이야말로 모든 나쁜 일 가운데 가장 나쁜 일이다"라고 하였다.

開. 이 장에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는 장애, 바른 법을 듣지 못하는 장애, 나쁜 길에 떨어지는 장애, 병이 많은 장애, 지혜가 모자라는 장애, 샷된 소견이 있는 사람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는 장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는 장애, 불법에 전념하지 못하는 장애"와 같은 것들인데, 이것은 <화엄경>에서 말해 놓은 성냄으로써 일어나는 장애의 일부분을 주려 본 것이다. 서산 스님은 말한다.
煩惱雖無量 瞋慢爲甚. 涅槃云 塗割兩無心 瞋如冷雲中 霹靂起火來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번뇌가 있다 하더라도,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을 못 이겨서 성을 내는 일이 그 괴해가 가장 극심하다. <열반경>에서는 '날

카로운 창이나 예리한 칼로 찌르거나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주더라도 두 가지 일에 다 무심(無心) 하라'고 하였는데, 성을 내는 일은 차가운 맥장구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으니라.

모든 번뇌 가운데에서도 성내는 것만 큰 번뇌와 다른 사람에게 바로 해악을 끼치는 일은 없다. 이 성내는 마음은 '나'라는 놈이 자신이 잘났다고 우쭐대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음공부를 하는 사람이라면 '나'라는 놈의 실체가 없는 줄 알고 '나'를 내세워 생겨나는 어떤 경계에도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날카로운 창이나 예리한 칼로 찌러도 '나'라는 것이 없는데 누구를 원망할 것이며, 좋은 약이나 향수를 발라주더라도 '나'라는 것이 없는데 무엇을 기뻐하고 좋아하겠느냐? '사비' 분별하는 '나'라는 존재가 없으므로 원망할 것도 없고 기뻐하며 좋아할 것도 없는 것이 무심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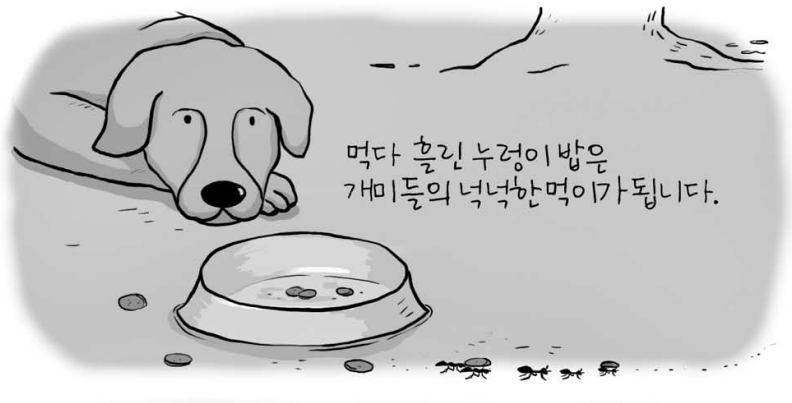
무심하여 사비 분별이 없는 곳이 바로 부처님의 세상이다. 사비 분별이 사라진 부처님 세상에서 성을 내는 일은 맥장구를 같은 번뇌 속에서 벼락 치며 일어나는 불과 같아서 금방 사라지는 허깨비와 같다. 모든 허깨비가 사라진 이 자리는 오직 부처님의 미소와 자비만이 넘쳐흐른다. 부처님의 미소와 자비를 담아서 중국 오대산 중턱의 외판암자 금강굴에서 문수보살을 친견하려고 기도하던 무착(無著 821~900) 스님에게 문수 동자가 들려준 계승이 있다. 이것은 요즈음 사람들도 많이 좋아하여 외우고 다니는 계승이다.

面上無瞋供養具 口裏無嘔吐妙香 心裏無瞋是珍寶 無染無垢是真常
성 안내는 그 얼굴이 참다운 공양구요 부드러운 말 한 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깨끗해 티가 없는 진실한 그 마음이 언제나 한결같은 부처님 마음일세 (석경 스님 번역)
■ 원순 스님(송광사 인입암)

I Love Buddha

용정운(www.buddhailust.org)

존재하는 이유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차수(叉手)

사찰수련회를 가면,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것이 있습니다. '묵은'과 '차수'지요. 순식간에 말과 손이 '뭉쳐집니다.' 그간 너무도 자유롭던 입과 손이 절제의 덕을 요구받게 되는 겁니다. 말을 못하고, 양 손을 단전에 붙이고 다녀야 하니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사실, 차수 자세는 합장 못지않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앉아 있거나 서있을 때 차수하고 있는 모습은 너무도 경건합니다. 교육 잘 받은 귀공자 같고, 결혼과 예절 바른 양반 집 자녀 같으니까요. 두 손을 자연스럽게 마주 잡는 차수. 이것이야말로 존재에 대한 경외와 존경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차수는 이렇게 합니다. 양손의 엄지와 집게손가락 사이를 마주 끼우고 한 손바닥으로 다른 손의 손등을 가볍게 덮습니다. 이 때, '왼손이 아래나 오른손이 아래냐'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스님은 남자는 왼손을 오른손 위에, 여자는 반대로 해야 한다고 합니다.

남자의 경우, 왼손은 양기를 의미하기 때문에, 경건한 절집에서는 양기를 덮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손이 위아래냐를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왼손 오른손을 따지게 된 것은 예로부터 우리나라가 좌고우비(左高右卑)의 문화권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의정이 우의정보다 높았던 거죠. 반면 좌도(左道는 사도(邪道)요, 우도(右道는 정도(正道)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결국, 좌우의 개념이란 편의적이었을 뿐입니다. 하기 편한대로 손을 마주잡으면 됩니다.

김철우 기자 in-gan@buddhapia.com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122)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제2부 68강 혜능이 설파하는 무착(無著)과 무상(無相)의 행(行)

"어리석은 마음에 출몰하는 생멸(生滅)을 '지해'로, 반성과 자각으로 제거하십시오." 혜능의 권고어가 한 마디에 집약되어 있다. 그의 노파심은 이어진다. "이 생멸 안에는 생멸의 치유와 소멸을 통해 심리적 자신과 자존을 취득한다는, 그리하여 남과는 격이 달라진다는 '소유'의식의 발생(生)도 들어있다. 일체의 법에 대해 무심한, 기대와 희망을 내려놓고, 거기 기반하지 않는 삶을 이루라, 그것도 입으로만 말고, 실천으로..." 그의 구절을 더 들어보자.

(유조 13-2)

"佛問須菩提, 如來說法心有所得不. 須菩提知如來說法心無所得, 故言無所說也. 如來意者, 欲令世人離有所得之心, 故說般若波羅蜜法, 令一切人聞之, 皆發菩提心, 悟無生理, 成無上道也."

"부처가 수보리에게 물었다. '여래가 진리를 설했고, 나는 그 진리를 획득했다는 생각이 있느냐?' 수보리는 여래가 진리를 설했지만, 그럼에도 내 마음에 얻은 바 진리는 없다는 것을 알기에,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여래의 뜻은 세상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얻은 바 있다'는 마음(有所得之心)을 제발 떨쳐내게 하려고, 이 반야(반야)의 진리

를 설한 것이다. 그럼으로써 듣는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보리심(菩提心)을 발하게 하고, 무상(無相)의 진리를 깨달아, 마침내 무상(無上)의 도리를 성취케 하려는 것이다."

(부연 13-2)

역시 <금강경>이 타겟으로 하는 것, 혜능이 강조해 마치 않는 경계도 이 '소유'와 '지배'의 의식이다. 심리적 결핍과 짝해 있는 이 오래된 허기를 다스리지 않으면 영원의 평화는 없다! 작은 것 하나 성취했다고 우쭐하고, 조금 늘어난 재산에 약간 높은 지위에 '취득'을 자부하는 것도 느끼고 비교감이다. 예를 말로는 '졸린다'고 하던가, 세속 너무 더럽다는(無)의 진리를 향한 자의 성취의식은 더욱 위태롭다. 내적 자부는 겸양과 동정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독점자의 오만과 독선으로 빠진다면, 그 인간 차라리 이 도에 접하지 않으니만 천백배 못하다.

<금강경>은 세속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수행인들, 종교 종파를 불문하고 길을 간다는 자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을 경계하고 또 경계한 경전이다. 진정 불도를 익힌 자, 그 빛에 휘황하게 은총받은 자, 그는 불교의 냄새를 피우지 않는다. 지극히 평범해

서 보통 사람들은 그를 알아볼 수 없다. 거꾸로, 불도에 아예 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불도의 힘과 영광을 느끼는 때가 많다. 그렇기에 <금강경>이 한사코 '그분은 32상의 표징으로 오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지금 그분은 집안에서 밥을 짓거나 설거지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거리에서 신문을 펴고 있을지 모르며, 식구들을 먹여살리려고 이 찻집하고 험한 세상에 뜬에 젖은 지체 몇 장을 벌고 계시지 모른다.

若波羅蜜, 無著無相行, 了妄念塵勞即清淨法性. 妄念既無即非微塵, 是名微塵. 了眞即妄, 了妄即眞. 眞妄俱泯, 無別有法. 故云, 是名微塵. 性中無塵勞即是佛世界. 心中有塵勞即是衆生世界. 了諸妄念寂寂, 故云非世界. 證得如來法身, 普現塵刹, 應用無方, 是名世界."

"여래가 말씀하시길, 중생들의 몸(性) 안에 있는 망념들은 삼천大千세계 안에 들어찬 먼지들같다고 했다. 중생들은 예외없이

이었고, 망념된 것이 기실 진짜라는 것을 알자, 진짜와 망념이 함께 스러져 다시 다른 구분(法)이 없다. 그래서 '이를 먼지라 이름한다'고 말했다. 내 몸(性)에 아무런 진로(塵勞)가 없는 것이 곧 부처의 세계이다. 마음 속에 진로가 있는 것이 곧 중생의 세계이다. 여러 망념이 공작한다는 것을 알기에, '그래서 세계가 아니라 한다'고 했다. 여래법신을 증득하여 널리 수많은 세계에 자유롭게 나투길래, '이를 세계라고 한다'고 했다.

그러므로 늘 스스로 돌이켜야 한다. 세상은 평은한데, 내가 스스로 상(相)을 짓고, 스스로 쫓고 깨물며 깨침을 추지 않는지... 인간은 다들 이 오래된 습관이 만든 자기감옥 속에 갇혀 산다. 그래서 중생이다. 그렇지 않은가.

그 감옥의 크기와 성격이 세상을 보는 눈을 결정한다. 결코 세상은 자기눈높이 이상을 보여주지 않는다. 불교는 각자의 식(識)에 따른 세상의 층위를 33천(天)으로 설정해놓은 것을 기억할 것이다.

자기 세계(世界)라는 감옥에 갇힌 사람은 다른 사람도 자기같은 줄만 안다. 그러나 각자 욕망과 습관의 지도는 서로 매우 다르고 또 홀쭉 격이 다른 사람도 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욕심에 따라 물불 아니 가린다고 생각하지 말라. 사람에 따라 가치의 무게중심이 다르기에 관용이 필요하고, 또 어떤 사람은 보다 큰 규모에서 생각하고, 보다 원대한 이상을 갖고 있기에 그들을 존경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혜능의 권고대로 살아보자. "념심(念心)이 반야(반야)를 올바로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가자. 그때 먼지처럼 뿌연던 망념들이 청정한 법성으로 변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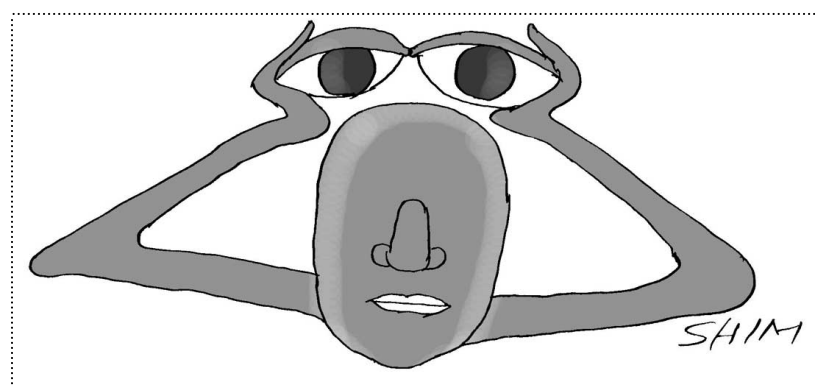
우리 자신이 변하지 않는다면, 세상은 결코 구원되지 않는다. 입만 열면 남의 탓을 하는 사람과는 상종하지 마라. 그들을 책임 있는 자리에 앉혀서도 안된다. 불평을 말하기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무슨 작은 일이라도 성취하여 세상에 보탬이 될까를 생각하라. 그 '작은' 태도 하나가 보통사람과 영웅을 가른다. 말많은 세상, 남의 탓하고, 세상을 적대시하느라 원망과 어지러움이 가득한 세상, 희망의 불씨를 위태롭게 만드는 혼돈과 광풍의 세상에 이 덕목이 목매게 된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식(識)의 눈높이가 세상을 결정한다

반야(반야)의 혜능의 말대로, '보리심(菩提心)을 발하게 하고, 무상(無相)의 진리를 깨달음으로써, 무상(無上)의 도리를 성취케 하려는 것이다.' 여기 '무상(無相)의 진리(眞)'라는 말이 낱설지 모르겠다. 앞에서 어리석은 마음이 무지에 싸여 '생멸'을 상속(相續)해 나간다고 했다. 무상(無相)은 이 심리적 윤회로부터의 해방을 뜻한다. 사물은 연기(緣起)에 따라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 '저대로의 여전한 과정'이 심리적 전변이나 격돌을, 그로 인한 차별을 야기하지 않을 때, 그 마음이 비로소 말한다. "사물은 변화하지 않고, 세상은 평온하다!" 오히려 무상은 사물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 변화에 따라 심리적 계산이나 격변의 추동이 그만 멈춘 자리, 즉 윤회로부터의 해탈을 가리키고 있다.

(혜능 13-3)

"如來說, 衆生性中妄念, 如三千大千世界中所有微塵, 一切衆生被妄念微塵, 起滅不停, 遮蔽佛性, 不得解脫. 若能念念眞正修敬



망념의 먼지들을 덮어쓰고 있는데, 그것들은 실 새 없이 일어났다 스러지며 불성을 가로막고 해탈을 방해한다. 만일 망념이 반야(반야)를 올바로 수행하고, 무착(無著) 무상(無相)의 행(行)을 닦아 나갈 수 있다면 먼지처럼 뿌연던 망념들이 어느덧 청정한 법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 의미에서 망념이란 없기에,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 부른다'라고 한 것이다. (정리자)진짜라고 분별 것이 망념된

(부연 13-3)

여기 '먼지'들은 앞에서 적은 대로, '어리석은 마음의 생멸', 그 출몰을 가리키고, 그 흔적들로 하여 혼란해진 마음들을 가리킨다. 그것은 또한 연기하는 세상이 스스로 여여(如)처럼 뿌연던 망념들이 어느덧 청정한 법성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이렇게 궁극적 의미에서 망념이란 없기에, '먼지가 아니다. 그래서 먼지라 부른다'라고 한 것이다. (정리자)진짜라고 분별 것이 망념된